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9시 / 11시

교회소식

12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김은희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이 땅을 위한 기도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찬 48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 338)
그 맑고 환한 밤중에(찬112)

만 가지 은혜를 (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4:10-27

곧 오소서 임마누엘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 37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2월의 공동기도는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늘 2부예배 시간에 “**11기 생명의살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 김혜진, 이건정(수료간증), 이효경, 정지영
5. 12월 25일(토) 오전 11시에 **성탄절 가족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드려지는 성탄감사헌금의 50%는 선교와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6. 12월 25일(토)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7. 2022년 예산안 결의와 직분자 피택을 위한 **정기공동의회**가 12월 26일 주일 2부예배 후에 있습니다.
8. 2022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 2022년 **큐티책 연간 정기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 \$70 / 6개월 : \$35 (문의 - 박순정)
10. 중고등부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탄절 찬양을 준비**합니다. 시간은 12시 30분 - 1시 30분 입니다.
11. 양명철 목사가 오늘(12/19)부로 사임합니다.
12. 권혁용 전도사가 오늘(12/19)부터 부임합니다.
13.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Restart 2022

코비드로 인한 일상의 불안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작년(2020년) 코비드가 번져가던 그때 전문가들은 2021년이 끝나갈 즈음 코비드도 진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예측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전염성이 강한 변종의 등장은 코비드를 여전히 현재적 두려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며 완전히 물러가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자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이 경구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우리는 흔히 새털같은 나날 중에 하루로만 생각을 하며 보냅니다. 그렇게 2021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9일, 이제 열흘이 조금 더 지나면 2021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비드로 인해 허송세월하듯 그렇게 2020년도 보내었고, 2021년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2년을 삭제하고 나이라도 먹지 않으면 좋으려만, 그 2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코비드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감당해야 할 사명도 뒤로 미룬채 나중에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나중을 도모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사명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삶이 힘차게 행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비드로 여전히 조심성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온라인에 의지하기 보다는 현장에 나와 함께 공동체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새벽기도회로 모여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정상화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 교회로서의 당연한 정체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2022년 우리는 회복을 시작해야 하며, 새예배당 입당은 총동원전도주일로 만들어 전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